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2002년도 표어 ☉
성령이여 교통케 하소서 (고후13:13)

☉ 행동지침 ☉

- 1. 내실있는 교회 되어 바른 신앙, 바른 신학, 바른생활을 실천한다.
- 2. 성숙한 교회 되어 이웃과 세계교회를 섬기며 화평과 연합을 도모한다.
- 3. 책임있는 교회 되어 지역사회와 민족 앞에 소금과 빛의 사명을 다한다.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 (02) 558-1106 팩스: (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태풍 피해 국민 돕기 위한 수재의연금(품) 접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엡5:2)

우리교회는 지난 8월31일 한반도를 휩쓸고 지나간 태풍 루사로 인해 전국적으로 수많은 수재민과 인명 피해, 물질적 피해가 발생한 국가적 재난 복구에 동참하기로 하고 이웃의 고난을 함께 짊어지는 마음으로 9월2일(월)부터 수재의연금과 수재의연품을 교구 긴급망을 통해 접수하고 있다.

현재 102호 미스바 홀에서 교구별로 접수하고 있으며 1차 수집된 의류 및 침구 그리고 가전제품 등 37상자(2380점)와 현금을 종류별로 포장하여 재해지역내의 우리교회가 지원하고 있는 농어촌 후원 교회 중 김천소재의 백마교회와 울곡교회에 지난 금요일에 보냈다(사진). 이번에 수재의연품을 접수하고 있는 구제위원회는 오늘(8일 주일)까지 접수를 완료하여 갈급하게 구호물품과 외부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는 수재민들에게 전하기로 했다.

이웃의 고난의 짐을 함께 나누어 짊어지기를 원하는 성도는 형편이 닿는 대로 의류, 식량, 침구 식수 등의 물품을 나누거나 수재의연금 접수에 동참하기를 바란다.



2002 바자 준비위원회 발족

불우이웃 돕기와 현당을 위한 2002 열린 바자를 준비하는 바자준비위원회는 각 부서 책임일 부장과 차장 그리고 실행위원들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바자위원회는 행사를 총괄하는 바자본부와 기획부를 비롯한 6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부서는 부장과 차장 그리고 실행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기 바란다.

부서명	직책	성명			실행위원
바자본부	대회장	이중윤			교구위원장: 박두호 각점포 지도 및 교구 기도회 주관, 연락
	위원장	박철훈			
바자본부	지도	이성득 이규정 김운호			인대진
		윤영국 한상은 오정식 이용식			
기획부	부장	이복규	차장	우지원	박두영 김경희 안분선
재정부	부장	오정수	차장	신용식	
판매관리부	부장	김세재	차장	조정식	김영주 양인수 윤운식 윤성남 이태원 김관홍 양춘경 홍창배 오승민
시설부	부장	임훈규	차장	오유식	김형택 이승우 손병석 이양철 조철기 김재근 이인근 조동환 장두연 김중근
섭외부	부장	윤찬오	차장	오형철	이계홍 김인수 유용상 최광성
홍보부	부장	노송성	차장	김규태	서춘식 김시환 김복승 이강인

† 점포장은 각교구 교구장 † 영업부장은 각교구 남자간사 † 홍보부장은 각교구 여자간사 † 실행위원은 각교구 다락방장

권사회 기도회 - 9월13일(금) 9시30분

매월 한번씩 교회에 모여 철야로 드리는 권사회 기도회가 9월13일(금) 저녁 9시 30분 102호미스바 홀에서 열린다. 국가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많은 기도의 무릎이 필요한 지금 권사회원은 사명감을 갖고 적극 기도에 참여하기를 바란다.

2차 피택자 교육 시작한다

9월14일(토)부터

지난여름 8월 한달 간 휴강하였던 피택자 교육이 오는 9월14일(토) 다시 시작해 오는 11월9일까지 계속되며 피택자들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헌법 제2편 정치 제55조에 따라 당회가 주관하는 6개월의 교육을 수료하고 오는 11월24일 교회 설립기념주일에 서울교회 집사와 권사로 만수를 받고 취임하게 된다. 교육은 매주 토요일 오전 6:10~7:30 분까지 606호(피택집사)와 602호(피택권사)에서 계속된다. 자세한 교육일정은 다음의 표와 같다.

일자(토)	피택 집사 및 권사 교육	
9/14	직분자와 전도 (이규정)	성경적 교회론 (오정식)
9/21	성경적 교회론 (오정식)	직분자와 전도 (이규정)
9/28	구약개설 (이용식)	신약개설 (김운호)
10/5	신약개설 (김운호)	구약개설 (이용식)
10/12	교회헌법(오정식)	장로교 신조 (윤영국)
10/19	장로교 신조 (윤영국)	교회헌법(오정식)
10/26	장로교요리문답(이성득)	한국교회사(한상은)
11/2	한국교회사(한상은)	장로교요리문답(이성득)
11/9	담당목사님 시간 당회고시 및 당회원 면접	

중등부 학교별 신우회 조직한다

9. 7(토) 대청중학교부터 시작

중등부(부장: 서춘식 집사)는 현재 출석중인 학생들을 학교별로 묶어 신우회를 조직하여 해당학교별로 전도활동을 펼치기로 하였다.

중등부 학교별 신우회는 대청중학교에서 처음 조직이 되며 교회학교의 부흥성장을 위한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고 교사와 학생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함께 하고 있다. 또한 매주일 오후 1시 학생회 임역원 15명은 한자리에 모여서 장기 결석회원과 자주 결석을 하는 회원, 그리고 새친구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편지 쓰기를 시작하였다.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적극적인 관심 속에 알차게 성장하는 중등부가 되도록 기도한다.

이사야서 강해

만민의 모임

(이사야 66장 18 - 24절)



이종운 목사

본문은 미래에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 예루살렘에 모여 영원히 하나님께 경배하는 대단원의 모습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적들은 심판을 받아 멸망하고 교회의 전도자는 복음을 만방에 선포하며 회개한 이방인과 새롭게 된 유대인들이 같이 예루살렘에 모여 하나님을 경배하게 됩니다. 이것은 성도들의 미래의 승리와 축복을 말씀합니다.

1. 구원받을 성도가 해야 할 동사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못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18절).

하나님은 그들의 패역한 행위와 불신앙의 사상을 아시고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경건한 유대인과 이방인을 예루살렘에 모이게 하고 그들이 와서 하나님의 영광, 곧 하나님이 원수를 멸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모습을 볼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천국에서 제일 먼저 볼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에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아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못 나라에 전파하리라"(19절).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들, 환난 중에 살아남은 성도들이 복음의 선교사로 하나님의 영광을 못 나라에 전파할 것입니다.

다시스는 길리기아 지방에 있는 최서단의 항구이며 뿔은 북아프리카의 리비아를 말합니다. 그리고 활을 당기는 룻은 동북아프리카, 나일강 하류의 삼각주 서편을 말하며 두발은 유브라테강의 상류, 흑해의 동남편인 러시아를, 아완은 헬라인을 가리킵니다. 이와 같이 살아남은 성도들은 동서남북 사방에 하나님을 전파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믿음으로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먼저 복음전파를 실천해야 합니다.

이들은 모두 성지에서 먼 곳으로 하나님을 듣지도 알지도 못했으나 선교사들을 통해 복음을 듣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여기서 가르치는 것은,

① 유대인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체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롬 15:16). 바울은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받겠다고 했고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말씀은 이사야서에 예언된 것입니다.

② 복음을 받은 이방인이 이제는 다른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와 집에 드림 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못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20절)

이와 같이 유대인들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은 이방인들이 다른 나라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약속의 성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 그리스도가 머리되시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합니다. 또한 성찬에 초대되어 여호와와 식탁에 앉으며 가장 자유롭게 온전하게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는 기도하는 특권을 누립니다.

이 기독교 2천년 역사입니다.

"나는 그 가운데에서 택하여 체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와 말이니라"(21절).

하나님께서서는 이방인 신자 중에서 복음의 일꾼을 택하시어 세우십니다.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가 철폐되고 구약의 이스라엘 종교가 세계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유대인은 없습니다. 세계 만방에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마침내 구원받은 백성들은 새 예루살렘에 모이게 됩니다.

2.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를 얻게 하신다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22절).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구원받을 자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통하여 만물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사람으로 만든 이들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던 하늘과 땅은 끝이 오나(벧후 3:10, 계 21:1) 새 하늘과 새 땅은 영원히 존속합니다(사 65:17, 계 21:1-27, 22:1-5).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처럼 거기서 살 구원받은 백성도 영원히 존속하게 됩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백성이 얻을 영원한 승리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께 속한 나라이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가 있는 나라입니다(23절).

3.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심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아와 예배하리라"(23절).

하나님은 당신과 가장 가까이 친구를 맺으려는 사람들은 영접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로 체사장과 레위인을 삼으시기를 원하십니다(21절). 이것은 놀라운 혁명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이 말씀은 영광스럽게 성취됩니다.

우리는 이방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습

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약속의 성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 그리스도가 머리되시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합니다. 또한 성찬에 초대되어 여호와와 식탁에 앉으며 가장 자유롭게 온전하게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는 기도하는 특권을 누립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을 방해할 모든 요소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여호와 앞에 나가는 것이 허락되었고 왕 중 왕이 되시는 그리스도께 언제든지 자유롭게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에는 절망 중에 있던 이들이 왕과 체사장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은혜의 약속이 이사야서의 마지막 부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는 미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미래 상태를 현재의 상황을 통해서 설명하는 것이므로 문학적 의미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24절).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의 결국이 어떠한 것을 말씀합니다. 이사야서의 마지막은 이와 같이 무서운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본서를 낭독할 때 매퍼들이 이 비참한 24절을 생각하고 대신 23절을 두 번 반복하여 읽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성도의 구원과 악도들의 멸망을 대조시킴으로 그들이 받은 은혜와 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벌레가 죽지 않는 것을 칼빈은 악도들의 양심의 고통을 의미한다고 주석합니다. 또 불이 꺼지지 않는 것은 고통이 없어지지 않는 지옥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악인에게는 영원한 평안이 없습니다(사 48:22, 57:21).

히브리어로 가증함은 '데라온'이라고 읽으며 너무 끔찍해서 보기 싫고, 두려워서 쳐다보기 싫은 것을 말하며, '모든 혈육'은 유대인과 회개한 이방인을 말하는 것으로 주님을 경배하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는 영원히 멸망 받을 자들이 주님의 백성에게는 끔찍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멸망받은 자들을 바라보며 구원받은 백성들이 있는 천국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곳인가를 깨닫게 하십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영원에 이르기까지 작정하시고 예언자를 통해 예언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 집니다.

먼저 유대인 신자들이 이방에 복음을 전하고, 그 뒤에 이방인들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합니다. 이것은 예언의 말씀이며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증거 되고 확인된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구원에 참여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고 찬양하고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끝까지 믿지 않고 패역한 자들은 지옥에서 영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축복에 이어 심판의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이 말씀이 가슴 판에 새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의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데이비스 크레이튼 Davis Claydon

(국제 로잔위원회 총무)

친애하는 이종윤 목사님

ALCOE V 행사와 이번 회의를 너무 편안하게 진행시키고 우리를 잘 대접해 주신 당신과 당신교회의 아름다운 성도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아시아 로잔 위원회 의장을 맡게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는 당신의 지도력과 천국의 확장에 관한 당신의 비전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바라건대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과 서울교회에 계속되시기를 원합니다.

(중략)



▲ 아시아 로잔의 실명위원들

툼 쉘 Tum Ceu (미얀마)

친애하는 이 목사님, 환대와 ALCOE 회의에서의 당신의 가르침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것들은 우리 국민과 우리 나라에서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엠. 제이. 죠셉 M. J. Joseph (네팔)

친애하는 이종윤 목사님과 서울교회의 리더가 되시는 장로님들께 여러분께 비할 데 없는 감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냅니다. 무사히 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우리의 안부를 묻는 이 메일 너무 감사했습니다. 당신의 사랑과 관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교회에서 가진 회의에 우리를 초대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번 회의를 의미 있고 감동적으로 만들어주신 당신께 감사합니다. 로잔의 비전을 영원히 전하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잘 지내도록, 또 회의의 성공을 위해 뒤에서 살피주신 당신의 사랑과 관심, 염려, 도움, 환대, 봉사와 헌신에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네팔의 대표로 온 우리는 자신의 돈과 시간과 재능 등을 희생하여 우리를 섬기고 그러므로 우리에게 영감을 주고 모범이 된 성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 그가 가지신 각각의 은사로 서울교회 성도들이 더욱 부유하고 강건하도록 축복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리디즈 상쿱 Lidis Singkung (말레이시아)

친애하는 이종윤 목사님 당신의 편지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무사히 돌아와 목사의 일상생활로 돌아왔습니다. 한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놀랍고 의미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레오나르도 아티엔자 목사님

Rev. Reynaldo I. Atienza (필리핀)

친애하는 이종윤 목사님, 인사를 드립니다.

(중략)

이번 회의에 저를 초청하여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합니

준 벤서 Jun Vencer (필리핀)

친애하는 이종윤 목사님

ALCOE V 대회에 참석하게 하여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것은 저에게 큰 명예와 특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에게 계속되고 당신의 사역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의 배려에 큰 감사를 보냅니다.

요세 칼릴멜 Jose Kallimel (인도)

이종윤 목사님

전능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나는 당신들의 교회가 준비한 놀라운 회의에 참가하게 된 것과 준비하신 여러분께 크게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대회를 통해 나는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다시한번 당신들의 친절과 놀라운 돌봄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중략)

테레사 루아 Theresa Roco (필리핀)

이 목사님

이번 대회 기간동안 우리에게 보여주신 뜨거운 사랑과 환대를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교회 성도들의 헌신적인 태도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신사적이고 인내로 십리를 가주는 봉사를 행하였습니다. 주님의 기쁨으로 섬기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최근 태풍으로 피해를 본 여러분의 친구들을 위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중략)

이지로이 Lee Chee Loi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내가 한국에 머무는 동안 친절한 대접을 해주신 서울교회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놀랍고 열매있는 대회였고 경험이었습니다.

한국 국민들이 태풍으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받았다는 소식에 놀라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기를... (중략)

† 아시아 로잔대회에 참여했던 각국 대표들이 보내온 감사의 편지가 연일 도착하고 있다. 도착 순서대로 간추려서 소개한다 (편집부)

다. 저는 ALCOE V 위원회와 이번 회의를 진정 의미 있도록 하여주신 서울교회 KIMCHI 위원회를 위하여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서울교회의 친절환대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SPC를 전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을 축복하시는 채널로 계속 사용하여 주실 것을 의심치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종윤 목사님이 아시아 로잔 위원회 의장으로 선출되심을 축하드립니다. 필리핀 대표단인 우리는 당신에 대해 기도와 도움을 계속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동역자된 레오나르도 아티엔자

마틴 아딤키리 Martin Adhikary (방글라데시)

친애하는 이종윤 목사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이름으로 방글라데시에서 따뜻한 인사를 드립니다.

다카에 있는 제 사무실에 돌아와서 당신의 친절한 이메일을 막 읽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모든 염려와 친절환대와 지난주 서울에서 즐겁게 머문 것과 나의 삶을 만들기 위해 준비된 다른 모든 것들에 감사드립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위대한 나라를 방문하고 또한 그에게 찬양과 영광 돌리고 위원회를 서로간에 풍성하게 하고 격려하기 위해 당신의 서울 교회에서 열린 ALCOE V 대회에서 아시아 각국(캐나다와 오스트레일리아를 포함한)의 기독교 단체와 여러 교회의 지도들과 교제하며 받은 나의 놀라운 기독교인으로서의 은전이었습니다. 저는 어제 우리 교회(다카의 미르푸 침례교회)의 예배 시간에 이번 대회에 관해 약간의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저의 첫 번째 한국 방문이었고 매우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유다서 2절 말씀으로 큰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제 방글라데시에서 일상생활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축복을 당신과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우리모두의 머리 위에 계속 쏟아부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손님

이찬모 집사(3교구 직당봉사팀장)

언어가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얼굴 마저 다른 20개국의 사람들. 그들은 관광객이 아닌 귀한 하나님의 종들인 목사님들이었습니다. 8층 만나 홀이 열리고 들어오시는 귀한 손님들에게 밝은 미소로 반겨 바른 인사 한번 할 겨를 없이 만나 홀에서 섬긴 이들은 안네, 배식, 서빙 등 분주히 움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음식이 손님들 입맛에 잘 맞는지, 다른 음식 문화 속에서 불편한 점은 없는지 걱정을 하면서 모두가 잘 훈련된 전

문인들처럼 뒷마무리까지 정돈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그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권사님들과 주방에서 손맛을 내시는 집사님들의 땀방울은 바로 섬김과 순종의 그 자체 모습이었습니다.

"저분들이 누구인가. 생사와 만물을 통찰하시고 주관하시는 주님의 종들이 아닌가! 우리는 귀하신 손님들을 대접할 때 한국사람들의 전통적인 손님맞이 문화도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섬김으로서 그들에게 분명 좋은 인상을 남겨주었으리라 믿어보면서 그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시아 복음전도의 횃불이 되어달라고..."

계속되는 로잔대회 기간동안 귀하신 손님들을 대접하는 봉사의 손길 모두가 천사 같고 마음이 친절하며 음식 맛에 감격하였다는 칭찬을 받을 때 우리 식당 봉사 요원들은 한없이 기뻐하며 감사했습니다. 이런 봉사의 기회를 주신

주님께.. 또한 우리 서울교회 10년이라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의 중심교회로 쓰임 받게 해주시고 세워 주신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1층 입구로부터 9층 옥상까지 구석구석을 사용하면서 아름답게 건축한 건축위원들에게 재삼 감사를 드리며 이번 로잔대회 집행 기획부터 최종 마무리 봉사까지 모두가 하나됨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서울교회는 세계 200개 로잔 가입국들이 이곳에 모여 복음전도자 대회를 유치, 목사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선포할 수 있다는 큰 기대를 갖고 기도하겠습니다. 정들었던 5일간의 봉사를 정리하고 떠나시는 귀한 손님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손님들의 건강과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용식 목사님 가정을 찾아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이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갈2:20).

평소 이용식 목사님은 사도행전에서 그러저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다시금 회복하는 목회를 소망해 오셨다. 초대

교회의 모습을 보면 회중이 모이는 대그룹과 가정에서 떡을 떼며 교제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누는 소그룹으로 나누는데, 우리 나라의 교회는 회중이 모이는 대그룹은 잘 이루어지는 반면 소그룹 안에서의, 단지 교제와 성경 공부 전담에 급급한 모습이 안타까웠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그룹이 모이는 예배는 축제의 예배로, 소그룹이 모이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과 목적이 나타나는 그룹으로 만들어 대그룹과 소그룹이 균형 있게 성장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을 이 목사님의 목회철학으로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 서울교회 부임 후, 각 부서에서 열심으로 봉사하시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접하고 감사와 감격이 가슴을 가득 채운 것은 그래서 더 뜨거웠는 지도 모르신다고 한다.

모든 일들이 계획적으로 잘 움직인다는 인상을 받으며, 성도들의 성품이 교회에 흐르는 것도 목사님에게는 감사의 제물이 되었다고, 이용식 목사님은 부목사의 직임을 위임목사님의 목회를 잘 돕는 일꾼이라고 말씀하신다. 위임목사님의 목회방향과 교회의 비전에 맞추어 잘 협조하는 것이 자신의 일이며,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교회

가 아름답게 성장하도록 열심을 다하고 싶은 마음이 서울교회와 함께 하실 각오이자 버려지기기도 하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관계하시는 56교구를 가장 행복한 교구가 되도록 열심을 내는 것과 장년부, 교구위원회, 상호위원회, 경로대학 부서의 힘써 봉사하시는 여러분들을 또한 열심히 사랑하는 것이 이용식 목사님의 소망이시다.

찬송가는 434장 "나의 갈길 다 가도록"을 즐겨 부르시는 이 목사님 가정은 정경숙 사모님과 대전 초등학교 3학년인 주영이, 그리고 5살 짜리 주안이, 네 식구이다. 사랑스런 아내의 내조와 피로를 풀어주는 아들의 안마와 귀여운 딸의 재롱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목회를 하신다는 이 목사님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찬송을 부르게 되면 힘이 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신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서울교회 성도님들에게 한 말씀을 부탁드리자, 목사님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주셨다.

"서울교회 성도는 가장 복 받은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이 좋은 교회에서 훌륭하신 목사님을 모시고 신앙 생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고 은혜입니다. 이 교회를 신앙의 젖줄 삼아 풍성한 열매 맺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편집부(나소정)

제7회 작은 순례자의 합창 와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라

신미숙 목사(초등부 지도)

온 누리가 풍성하게 채워져가는 가을에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부를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새 노래로 노래하는 초등부 찬양대의 작은 순례자의 합창이 있어버린 영혼 구원,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신 위대하신 일을 감사하며 경배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1993년에 시작되어 이제 7회를 맞이합니다.

매회 40-50명의 찬양대원이 풍성한 찬치를 만들어 왔습니다. 금년에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기를 즐겨하는 36명의 친구들과 오동은 선생님, 홍혜란 선생님이 지난 3월부터 이 날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를 해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home coming 순서로 지금은 대학부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청년들로 성장한 선배들이 그때를 회상하며 찬양을 부르며 학부모님의 찬양과 교사들의 찬양 그리고 유년부의 찬양도 있습니다.

모든 순서가 끝나면 처음 교회에 나온 초등부 친구들을 환영하는 시간을 가지며 더불어 행운권 추첨도 있습니다. 멋진 선물도 받아주세요. 우리교회의 스카이라운지인 8층에 맛있는 만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순수한 영혼들의 아름다운 찬양으로 새로운 기쁨과 소망이 회복되고 혼탁한 사회가 정화되며 친구들에겐 비전을 주고 지켜주는 이들에게 힘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1세기 미래와 비전이 있는 초등부는 매주 많은 어린이들이 모여서 예배와 성경공부 그리고 특별활동을 통하여 주님을 더욱 더 깊이 알아가며 믿음, 인격, 지혜가 자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아래 정의와 평화를 배우고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며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으로 준비하는 서로 세워주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모든 친구들은 하나님의 시대적 요청의 부르심에 따라 순종하며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준비된 사람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면 "예"하고 대답하는 사람들이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은 성도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초등부는 자라갑니다.

동정

■ 이종윤 목사는 8일(주일)동광교회 목사 위임식에서 설교한다.

9일부터 13일까지 대한예수교 장로회 87회 총회에 박길훈·오정수장로와 함께 총대로 참여한다.

■ 기증: 충남 목양교회 인태균 목사 감사 2 상자

○금주의 식사제공: 박동원·노경선 집사기증 (장모님의 정례를 은혜중에 마치고)

○목회자세미나 식사제공: 살롬권사회·백영희권사

○목회자세미나 간식제공: 오정수 장로 이영희 권사기증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98.1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 극동방송(HLXK 1188KHz)
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 인터넷방송 (· C3 TV - <http://c3tv.co.kr>
· 호산나넷 - <http://hosanna.tv>)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제22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를 위하여
2. 서울성경대학·주부대학·살롬경로대학을 위하여
3. 병상에 있는 환자들, 실직자, 소외된 자들을 위하여
4. 수재민들에게 위로와 회복 그리고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위하여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 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일기도회	오후 9시 30분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교회약도 :

